815연석회의, 광복70년 통일기원 행사 ‘다채’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7월 15일 발족한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에는 도라산역 평화공원을 찾아 평화통일기원법회를 봉행했으며, 광복절을 사흘 앞둔 8월 11일에는 배우 권해효씨를 초청해 815기념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광복70주년 8 · 15준비불교단체연석회의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8월 8일 도라산행 평화통일열차를 타고 ‘DMZ–train타고 통일을 외쳐요!’ 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통일서원을 리본에 적어 철조망에 매달았다.

도라산행 열차타고 통일로 ‘더 가까이’

815연석회의, 8월 8일 도라산 평화공원서 통일기원 법회

광복 70년의 다른 말은 ‘분단 70년’이다. 광복의 기쁨 안에는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살아야했던 슬픈 70년의 역사가 서려있다. 이에 불교계 8개 단체가 다가오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아 북녘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시간을 가졌다.

광복70주년 8 · 15준비불교단체연석회의(이하 815연석회의)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8월 8일 도라산행 평화통일열차를 타고 ‘DMZ–train타고 통일을 외쳐요!’ 를 개최했다. 815연석회의는 이날 도라산 평화공원서 평화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한 후 평화의 리본달기, 평화통일강연 등 진행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평화통일법문을 통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평화통일소망이 가슴 속에 더욱 절실히 새겨지는 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훗날 통일이라는 거대한 산과 바다를 이루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단체 회원을 비롯한 재가 불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민통선 내에 위치해 분단의 아픔을 고이 간직한 도라산 평화공원은 민간인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지역인지라 참가자들의 얼굴은 설렘과 긴장으로 상기돼 있었다.

특히나 65년 전 1.4후퇴(초기 한국 전쟁 1950년 12월말~1월초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으로 국제 연합군의 주력이 서울에서 물러나고 공산 진영이 서울을 재점령한 사건) 때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을 떠나 남녘으로 내려온 김인철(남 · 66)씨의 마음은 더욱 애달팠다. 민추본 2기 불교지도자과정을 수료한 김인철씨는 “버스 타고 도라산 전망대를 다녀온 적은 있으나 통일열차를 타고 경의선 최북단 도라산역에 이르니 마치 고향에 다다른 기분”이라며 “평양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니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어진다. 평생을 눈물로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던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허전하다”고 애잔한 심정을 전했다.

민추본, 여성개발원 등 1백여 명 참가
참석자 중 이산가족 고향생각 뭉클
평화의 리본달기, 통일강연 등 진행
“통일의식 일깨우는 자리되길” 강조

1백여 명 참석자들이 최북단 도라산역 앞서 통일기원 화이팅을 외쳤다.

통일법회 봉행 후 만세삼창하는 모습

기원법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각자 통일서원을 리본에 적어 철조망에 매달며 남북평화를 염원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통일을 빨리 이룹시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등 절실한 마음이 담긴 문구들이 가슴 뭉클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불교여성개발원 6차 108인여성 윤정선(여 · 61)씨는 리본 위에 ‘평화통일, 아버님 친척들을 어서 빨리 만나 뵙기를’ 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윤정선씨는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남한으로 피난 온 후 남아있는 가족들 생사를 확인하기 더 어려웠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친척들을 만날 수 있단 희망이 사그라지지만 그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은 놓지 않겠다. 불교계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나서 남북교류를 다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이날 참석한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여느 때 같았으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곳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열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북한을 코앞에 두고 더 다가가지 못함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하지만 이 계기로 점차 통일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금 통일의식을 일깨울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의 평화통일강연 ‘도라산역의 상징성과 통일의 필요성’ 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도라산 역은 남북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벽을 허물어가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울부짖던 청년들 잊지 못해”

8월 11일 ‘배우 권해효가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815연석회의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8월 11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광복70주년 8.15특집 초청강연 ‘배우 권해효가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도 개최했다.

배우 권해효씨는 재일조선학교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 및 겨레하나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서 10년 이상 홍보대사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방북 경험을 통한 남북관계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이 제 실물을 보면 놀랍니다. 키가 작아서 그리고 너무 잘생겨서”라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며 강연을 시작한 권해효씨는 이내 통일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고 평화통일을 요구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갓 시작한 연기 공부가 그저 재밌었을 뿐 민주화, 통일 등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문득 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 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렷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회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해효씨가 통일 문제에 뛰어든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눈에 띄지 않게 사회 문제 관련 활동을 해오던 권해효씨 마음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2002년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에 참가한 때였다. 권해효씨는 “3박 4일 동안 4백여 명 남북청년들과 꿈같은 시간을 보내며 통일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었다. 마지막 날 서로에게 인사하는 남북청년들 얼굴에도 슬픔 대신 서로 다시 만날거란 기대와 기쁨이 만연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그들은 바로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이었다”고 언급했다.

“일본 땅에서 온 재일조선학교청년들이 떠나는 버스에 매달려 울부짖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때부터 ‘통일이 무엇이기에 저들이 그토록 원하는가’ 라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권해효씨는 “아직도 재일동포 60만 명 중 3만 5천명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조선적’ 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편, 조선학교도 학교로서 어떤 법적 지위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일조선학교를 지은 우리 동포들은 ‘내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글자를 알아야 한다’ 는 일념 하나로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이 가진 통일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연 중인 권해효씨 모습

몽당연필 · 겨레하나 등 단체 활동
02년 조선학교학생 만나 통일 관심
“佛, 흔들림 없는 인도 지원 해주길”

이에 권해효씨는 재일조선학교 학생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를 맡아 이들의 통일염원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밖에도 권해효씨는 남북교류협력 지원단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홍보대사를 10년 이상 맡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2005년 5월 평양 대동강 유역에 2층짜리 빵공장을 건설해 하루 1만여개 빵을 만들어 대동강 유역 영 · 유아들 식사를 제공했으나 대북관계가 단절된 이후 이마저도 중단됐다.

권해효씨는 “광복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와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하루속히 정세가 회복돼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권해효씨는 통일을 위한 불교계 역할 관련 “한국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역사의 변란기 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이불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강연 동안 그곳 어디에도 ‘배우’ 권해효는 없었다. 권해효씨는 북한청년들과 추억, 조선학교 학생들에서 느낀 그 간절함으로 절실하게 통일을 외치고 있었다.

인사말씀

(사)국제불교승가회 창시자겸 태화사

창건회주 법왕존자 동암스님 동상제막식

울산 태화사 창건 회주 이시고 불무도의 선구자, (사)국제불교 승가회 창시자이신 법왕존자 동암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스리랑카와의 교류를 통한 중생제도에 혼신을 다하신 업적과 희생을 기억하고자 스리랑카 콜롬보 아부야하라마 아난다 테로 스님의 사원에 동상을 세우는 큰 행사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 나마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동암스님 행장

- 병술년 경남 울산 출생
- 1967년 5월 대한불교 조계종 일붕 대종사 은사로 출가
- 대한불교 조계종 범행 큰스님을 법사로 구족계 수지
- 일붕 선원 지도법사 역임
- 일붕문도회 부회장 역임
- 서울 일붕 호국선원 주지 역임
- 태화사 주지겸 창건회주
- 국제자원 봉사 우호협회 한국본부회장 un-ngo 등록
- 삼장법사 대승정 승왕 존자 철학박사 8개 박사
- 불무도 선구자
- 불교 교리 등 많은 저서 집필
- 2003년 9월 9일 사단법인 등록 창시
- 2006년 7월 5일 울산 태화사에서 열반드심 (세수 61 법랍 39)

(사)국제불교승가회

- 장 소 : 스리랑카 콜롬보 아부하야라마 사원
- 일 시 : 2015년 7월 28일
- 참 석 자 : (사)국제불교 승가회 회장 최정구, 이사장 송애자, 부이사장 무상스님, 이사 대명스님, 사무총장 조상환, 송원스님, 학성스님, 수월스님, 선주스님, 송윤스님, 송광스님, 송인스님, 성초스님, 기국진, 이상효, 김춘화, 김인성, 박기문, 김규태, 황우화, 정영순, 서원상, 김복순, 주숙자, 류희숙, 김기훈, 유정은, 정효진, 스리랑카 라자팍스 前대통령, 각 정계 인사, 각 종단 큰스님과 사부대중 등